

한국 자생으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경수목에 관한 소개(Ⅳ)

심경구/성균관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 교수

미 국 및 캐나다에서는 오래전 부터 한국원산 및 자생수목을 도입, 개발하여 조경수목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부 수종은 한국명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또한 신품종이 육성되어 상품화되어 있기도 하고, 교잡종으로 육성되어 상품화된 품종이 있으며 그 일부는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 한국자생수목이 미국으로 도입되어져 한국명으로 불리면서 널리 각광받고 있는 자생수종에 대해서 아직 연구된 바가 없고, 한국자생식물의 조경수목에로의 이용 번식 연구도 거의 없을뿐 아니라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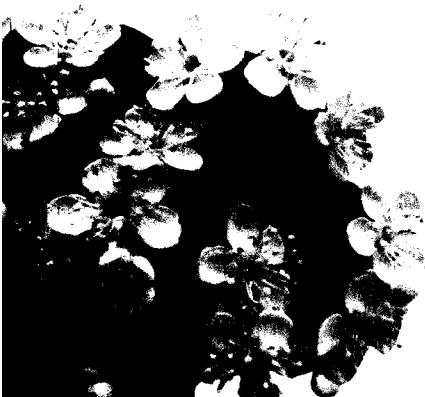
본 고에서 지난 조경수지 5호, 6호, 7호에 이어 우리나라 자생수종의 신품종 육성 기초자료 및 번식과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원산 자생으로 미국에 도입되어 상품화되고 있는 팔배나무, 때죽나무, 쉬나무의 미국 도입년도, 판매종묘회사, 품종육성, 교잡성 육

성 현황 등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팔배나무[Sorbus alnifolia(Korean Mountain Ash)]

우리나라 자생 팔배나무는 1904년 12월 28일 일본인 우찌야마(T. Uchiyama)를 통하여 한국의 자생 팔배나무를 미국 아놀드 식물원에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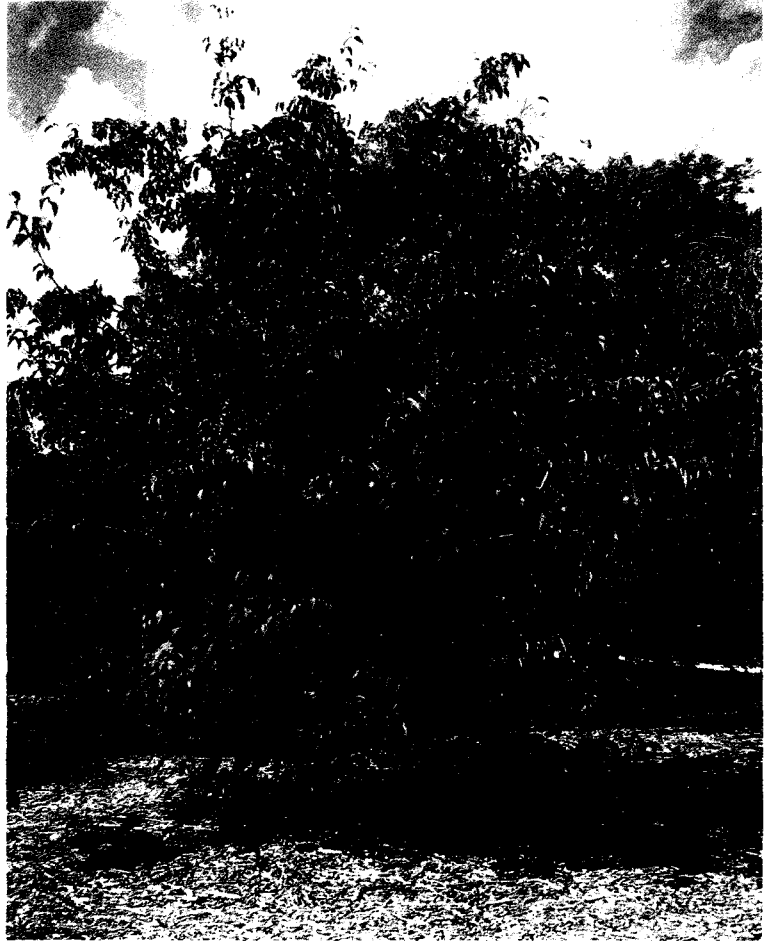
팔배나무가 처음 미국에 도입된 것은 1892년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 아놀드 수목원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8월에 미국 국립수목원팀에 의해서 전북 부안군 산내면 모항과 수락동 사이 해안지역과 전남지역에서도 팔배나무를 채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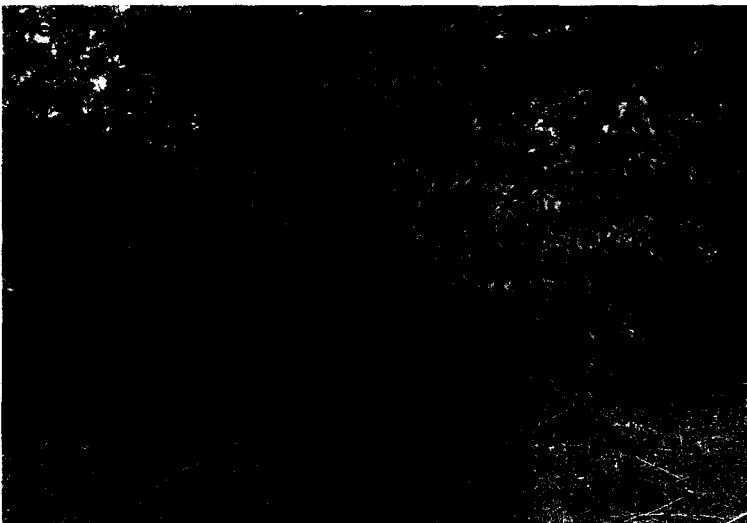
팔배나무 꽃

현재 미국 아놀드식물원에서는 수고 15m의 42년된 대형목이 자라고 있는데 팔배나무 신품종 육성종으로는 '레드버드' 품종(*Sorbus alnifolia* 'Redbird'), '리기다' 품종(*Sorbus alnifolia* 'Rigida'), '스카이라인' 품종(*Sorbus alnifolia* 'Skyline')의 세 종류의 품종이 개발되어 미국 에버빌리지 농장(Arvorvillage Farm) 등 14개 Nursery에서 판매되고 있다.

'레드버드' 품종은 직립성이 강한 품종으로서 붉은 열매가 겨울 내내 지속되어 야생조류의 먹이를 제공하는 수종이다. 또한 열매가 굵은 품종인 중국팔배나무도 육성되어 있다. 팔배나무는 John Holmlund Nursery Co에서 5ft. 되는 나무가 1986년 현재 \$9.40에 판매되고 있다. Oregon의 Forest Farm 묘목회사에서는 1991년 현재 수고 1.5m의 5gallon pot 묘목이 \$22에 판매되고 있으며, Iowa주



Harvard대학교 Arnold Arboretum의 80년생 접목된 팔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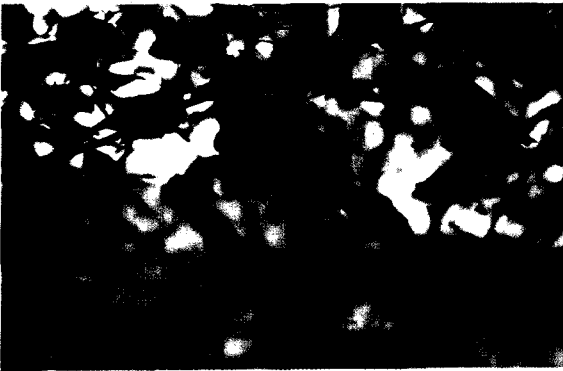
팔배나무 Weeping 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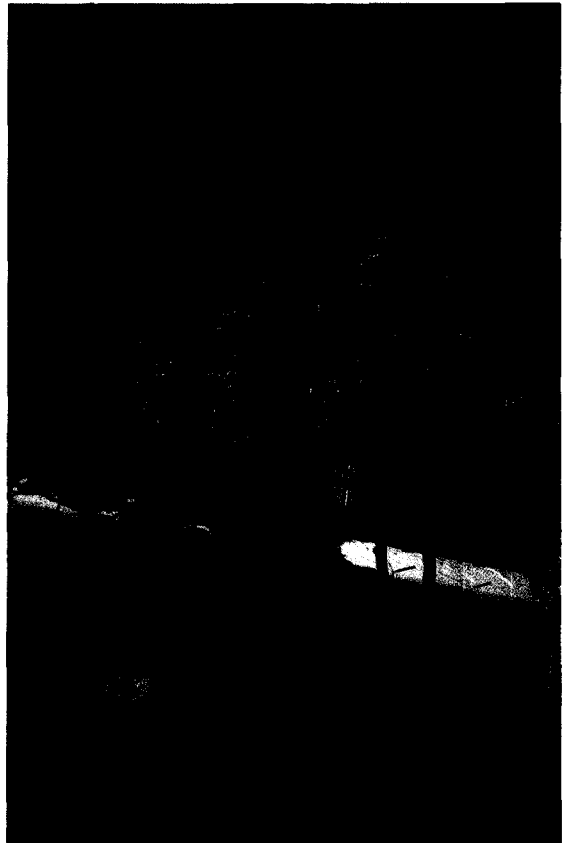
1



2



3



4

1. Harvard대학교내 Arnold Arboretum
에 있는 중국팔배
2. 팔배나무 열매 팔배나무 열매전체
3. 팔배나무 단풍
4. 팔배나무 개화전체

Sherman Nursery에서는 흉고직경 3cm묘목이 \$ 18.35에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 어느산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팔배나무는 산성비에 특히 강해 도시의 가로수용이나 조경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잎은 짙은 녹색에서 여름을 나면서 노랑, 오렌지색으로 변화하고, 가을에는 황금빛의 갈색으로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이다. 5월에 개화하는 꽃은 백색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9월에서 10월에 걸쳐 보라빛에서 오렌지색 그리고 선홍색으로 이어지는 열매는 감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조류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어 야생조류 유치용 수종으로서 공원수로도 적극 권장되는 수종이다.

현재 팔배나무 신품종육성을 위한 국내의 노력을 보면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자생 조경수목연구실의 심경구 교수팀이 전국의 팔배나무 자생지를 확인하고 채집한 팔배나무 중에서 가지가 치밀한 'Korean Compact form'과 줄기에 줄무늬가 뚜렷한 '줄무늬' 품종, 그리고 가지가 수양되는 'Weeping' 품종, 잎의 개엽시기가 일반 팔배나무 보다 빠르고 잎이 큰 품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재료를 확보하고 계속 연구 중에 있다.

때죽나무[Sytrax japonicus(Japanese Snowbell)]

우리나라 자생 때죽나무는 1985

년 9월 20일과 23일에 Raulston 박사와 미국립수목원팀(USNA ; U.S. National Arboretum)에 의해서 소흑산도와 대흑산도에서 채집되어 미국에 도입되었다.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때죽나무를 채집한 장소로는 전남, 전북, 충남,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채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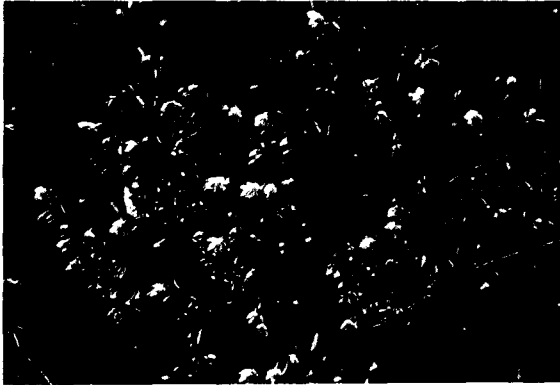
때죽나무가 처음 미국에 도입된 것은 1901년 일본을 통해서 도입되었고, 현재 아놀드 수목원, 모리스수목원, 모턴수목원, 미국립수목원에서 재배되고 있고, 아팔라치안 Nursery등 27개 Nursery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서 신품종 육성은 'Sohuksan' 등 6개 품종이 육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소

흑산도에서 채집된 때죽나무는 잎과 꽃이 크고 왜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미국에 도입되어서는 'Sohuksan'이라는 품종으로 명명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밖에 미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는 꽃잎이 핑크빛을 띄고 직립성의 수형을 가지는 'Pink Chimes' 품종과 'Rosea' 품종이 있다. 또한 Weeping form으로 'Pendula' 품종, 'Carilon' 품종등이 육성되어 있어 조경수목의 다양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겹꽃의 때죽나무와 변이일 때죽나무, 그리고 왜성 때죽나무 등이 선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죽나무종자는 Schumacher Co.에서 1온스당 \$ 40.5와 1파운드당 \$ 24



왜성때죽나무



때죽나무 꽃



때죽나무 열매

에 판매되고 있다. Iseli Nursery에서 'Carillon' 품종이 12-15inch인 나무가 \$17.00에 판매되고 있고 수고 15~18inch인 나무는 \$49.25에 판매되고 있다. 1991년 현재 Oregon주의 Angelica Nursery에서 수고 60~70cm되는 나무가 \$17.25에 판매되고 있다.

때죽나무는 최근 생태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도시 생태림이 공해 및 산성우로 인하여 소나무, 참나무류가 쇠퇴하고 있고, 때죽나무, 팔배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우점종으로 출현하고 있어 때죽나무는 산성우에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도시 조경수나 도시경관림으로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기대되는 수종이다. 때죽나무 잎은 여름에 진한 녹색을 띠고 있으나 가을에는 노랑색이 깃든 붉게 단풍이 들며, 단풍단체로 이듬해 1월까지 지속되기도 하는 개발 가능성이 큰 수종이다. 5월과 6월에 백색의 꽃잎과 노란색의 꽃밥을

드러내며 개화하는 꽃은 약간의 향기도 지닌 관상가치가 큰 수종이다. 꽃이 지고난 8월에는 회녹색의 열매가 가지에 매달린채 11월까지 지속되어 열매의 감상가치 또한 큰 수종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때죽나무 신품종육성은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자생조경 수목연구실의 심경교수팀이 1978년 경남 남해에서 수집한 때죽나무 종자를 받아시켜 1981년 때죽나무 3년생 묘목중 왜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때죽나무를 대상으로 현재 13년생된 왜성 때죽나무 신품종을 육성하였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선발한 왜성 때죽나무의 번식을 위하여 1991년 녹지삼목실험을 한 결과 IBA 5,000ppm에서 84.3%의 높은 발근율을 나타내었다. 왜성 때죽나무를 녹지삼목하여 발근된 개체는 현재 pot에 이식되어 양호한 생육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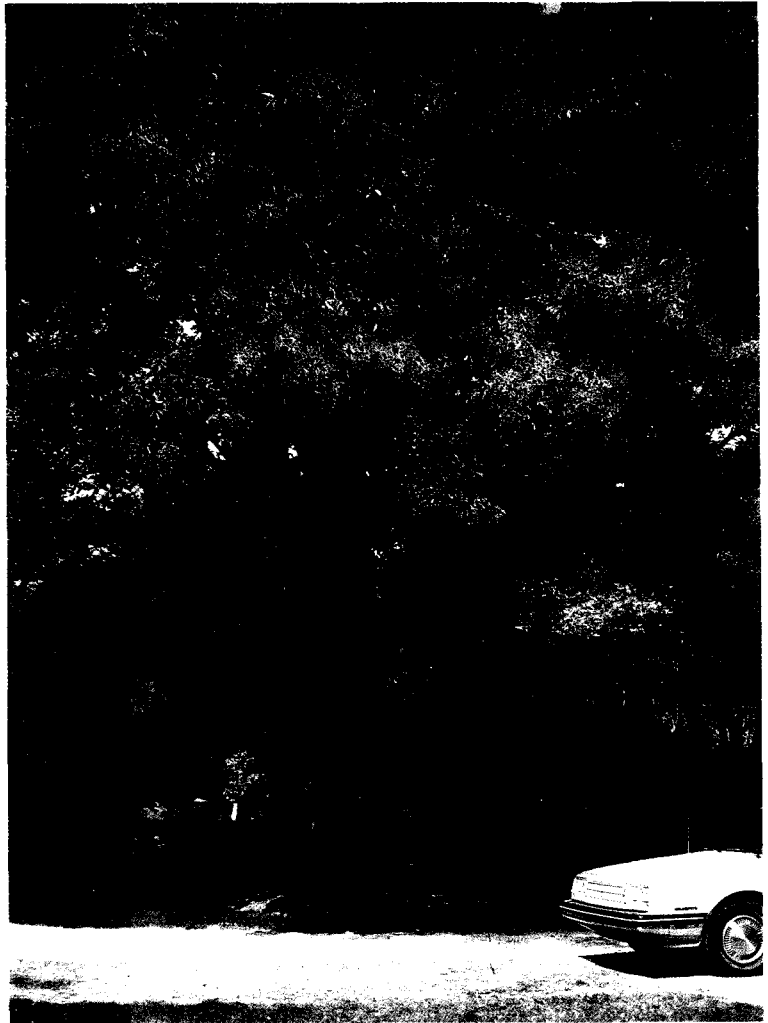
쉬나무[*Evodia daniellii* (Korean *Evodia*)]

우리나라 자생 쉬나무는 1905년 12월 15일 J.G.Jack에 의해서 미국에 도입되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쉬나무는 1989년 10월 7일 강화도의 쉬나무를 미국국립수목원팀이 채집하여 미국 아놀드 수목원에서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쉬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강화도, 경남, 경북, 경기도, 황해도 등지로 알려져 있다.

쉬나무가 미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05년 E.H. Wilson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현재 아놀드수목원, 모리스수목원, 모턴수목원, 번하임 수목원(Bernheim Forest), 스프링그로브 수목원(Spring Grove), 미조리 식물원(Missouri Botanical Garden)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아팔라치안 Nursery 등 10개 Nursery에서 판매되고 있다.

쉬나무종자는 Schumache Co.에서 1온스당 \$7.50에 판매되고 있으며, 1파운드당 \$49.50에 판매되고 있다. 1990년 현재 펜실바니아주 Appalachian Garden 회사에서는 수고 1m되는 나무가 \$6.00에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서 쉬나무의 신품종은 육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잡종도 육성되지 않았다.

쉬나무는 미국에서 '코리안 에 보디아'로 불리우고 있는데, 쉬나무의 붉은 열매가 특히 아름답다. 쉬나무의 잎은 여름에는 짙은 녹색을 띠고 가을에는 황녹색으로 단풍이 든다. 쉬나무 꽃은 6월에서 7, 8월에 백색으로 개화하는데 벌들이 찾는 밀원이 되기도 한다. 쉬나무 열매는 8월말에서 11월에 적색에서 흑색으로 익어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는 수종이다. ▲▲



펜실바니아주
모리스수목원의 쉬나무

쉬나무 열매